

총회 노동주일(4월 29일) 총회장 목회서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마 20: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일(29일)은 제44회 총회에서 재정한 노동주일입니다. 노동주일은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에 개입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고,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일자리가 없어 고통당하는 실직자와 가족,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최근 이슈화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세계적 변화를 아무도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UN은 2030년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현재 직업의 80% 사라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람이 살아갈 사회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막몬을 주인삼아 경제성장제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합당한 대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참된 노동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맨 나중에 온 품꾼에게도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 일한 만큼 더 받기를 바라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노동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창조질서의 법칙이었습니다.

제102회 총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요3:16~17, 창12:3, 마9:35)라는 주제 아래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노동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노회와 지교회에서는 오는 4월 29일 총회 노동주일을 지켜 주시고, 언제 그만둘지 몰라 애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고향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장애인 노동자, 일할 곳을 찾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들과 일자리를 공유하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먼저 신앙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67개 노회와 8,984개 지교회, 노동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4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최기학 목사

총회 노동주일 예배

※ 노동주일(4월 29일)은 제44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고,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일자리가 없어 고통당하는 실직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입니다. 아래의 예배문을 참고하시어 노동주일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총회 노동주일을 맞이하여 노동과 일터의 소중함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실업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응 답 송 찬 양 대

찬 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 이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신앙고백 <사도 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 다 같 이

인도자: 우리의 소망되신 하나님! 총회가 제정한 노동주일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지금 이 순간 절망과 고통, 한숨의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 중: 주님,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인도자: 주님! 오늘날 이 사회는 돈과 물질의 지배 아래 경쟁과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음 나눌 곳이 없고, 생존하기 위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며, 비정규직과 기간제로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대우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가족과 고향을 떠나 외로움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장애를 가지고 노동을 하지만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 오랜 시간 공부와 자격증에 열중했지만 일자리가 없어 한숨짓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 중: 주님,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인도자: 하나님!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 참다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소유만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해고가 없게 하시며,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갈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여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20:1-16 말 은 이

*설교본문은 노동주일에 맞게 다른 본문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설 교 자

설교 후 기도 설 교 자

봉 헌 말 은 이

찬 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다 같 이

1.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2. 네가 어둠속을 걸어 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3. 네가 부활의 주 따라 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 [후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위탁과파송 목 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자리에 감사하며,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자리와 베품을 나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축 도 목 사